

12월 1일 뉴스 종합 정리

2008년 12월 1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바닥 기대감 vs 고용 [다우: 8,829.04pt (+1.17%)]	지난주 뉴욕 주식시장은 닷새 연속 랠리를 이어가며 `최악은 지났다`는 기대감으로 온갖 경제지표 악재와 연말 쇼핑시즌 소비가 꾀꾀 얼어붙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딛고 상승.
고용 11개월 연속 위축 전망	마켓워치의 집계에 따르면 노동부의 11월 비농업부문 고용(5일)은 25만 5,000명 줄어들었을 것으로 예상. 이는 전월의 24만명보다 늘어난 수준임. 실업률은 전월의 6.5%에서 6.8%로 치솟았을 것으로 관측되었음.
유가, OPEC 회의 앞두고 보험 [WTI: \$54.43 (-\$0.01)]	국제 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의 결과를 주목하며 보험세로 마쳤음.
씨티·GM `급등`	정부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씨티그룹(C)이 12.6% 급등,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감.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F)는 정부의 지원 기대감에 힘입어 각각 8.9%, 25.1% 뛰었음. 미국 자동차 `빅3`인 GM과 포드, 크라이슬러는 오는 2일까지 25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받기 위한 자구책을 의회에 제출해야 함. 현재 구제금융 지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음.
"中 내년 10% 성장률 달성"	30일(현지시간)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중국의 내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10%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 장리춘 NDRC 연구원은 "글로벌 경제 둔화로 인해 해외 수요가 줄고 있지만, 소비와 투자 등 중국의 광대한 잠재적 발전 가능성은 빠른 경제 성장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예상.
日 금융기관 증자 4조 엔 달해..증시 부담	이미 지난 10월말 미쓰비시UFJ파이낸셜(MUFJ)이 3,900억엔의 우선주와 6,000억엔의 보통주 발행 계획을 밝힌데 이어 미즈호파이낸셜과 스미토모미즈이가 각각 증자 계획을 발표한 상태. 여기에 노리주킨은행 역시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조엔 이상을 증자할 계획이며 노무라와 2~3개의 생보사들 역시 증자를 고려 중.
英 RBS, 정부가 지분 60% 취득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RBS는 자본 확충을 위해 200억파운드(310억달러) 규모의 증자를 실시했으나 청약률은 0.2%를 기록.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앞서 발표한 구제 계획에 따라 200억파운드 규모의 주식 대부분을 인수할 계획.

제목	주요 내용
유럽 인플레이션, 20년 최대폭 하락...`디플레이션 우려↑`	28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통계국인 유로스타트는 유럽 지역의 인플레이션율이 10월 3.2%에서 11월 2.1%로 둔화됐다고 발표. 이는 지난 1991년 이후 가장 가파른 낙폭으로 1년래 가장 낮은 수준. 실업률은 9월 7.6%에서 10월 7.7%로 상승해 지난해 1월 이후 최고치다. 블룸버그 통신의 집계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ECB가 경기후퇴(recession)를 방어하기 위해 오는 4일 예정된 금융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75%로 50bp 추가 인하할 것으로 전망.
코트라, 내년 수출 10.3% 증가 예상	코트라가 해외 바이어 및 지상사 65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해위시장에서 바라본 2009년 수출전망' 에서 이같이 예측. 이는 2003년 이후 두자리 수 증가율을 유지한 것이지만 증가세는 둔화된 것. 대미수출은 감소할 것이며 아시아 중동이 전체 수출을 리드할 것.
은행권, 중소기업대출 다시 늘림	시중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됨. 하지만 연말 BIS비율 산정을 앞두고 이 같은 중소기업 대출 증가세가 추세적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